

SNS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중문천의 경관자원 스토리텔링 방안

강 정 호
제주대학교 강사

I. 서론

요즘 우리 사회는 소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 불리는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광고의 한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SNS에 적극적이다.

특히 관광객들의 경우 관광정보를 얻는데 과거의 책자화된 홍보물에서 벗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지 및 숙박, 식당 등의 예약까지도 SNS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킨 결과다. 과거 블로그나 카페 등 제한적인 의사교환 수준에서 발전한 것이다.

제주관광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로는 걷기코스로서의 올레의 개설과 더불어 크게 늘어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100% SNS를 통한 예약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관광지들은 어떤가. 거의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고, SNS를 활용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도 정보전달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양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소통에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SNS는 그 성격상 정보 제공 및 양방향 소통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 작업에도 한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게시한 글과 사진을 통해 처음 포스팅 한 사람과 이를 보는 이용자들이 함께 그 내용물에 대한 토론으로 그 깊이를 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새로운 이야기의 창출도 가능하다.

제주 올레길이 숨어있는 제주의 속살을 관광객들에게 알려줬다면 이제 SNS를 통해 제주의 자연 및 인문자원에 살을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제주관광 전 분야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중문천의 경관자원에 이야기를 덧붙여 SNS에 올린 몇 가지의 게시물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앞으로 중문천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SNS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II. 이론연구

1. SNS의 개념 및 적용사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www.myspace.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 같은 SNS 사이트는 마케팅 활동의 새로운 총아로 떠올랐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등장한 서비스의 수가 많은 만큼 서비스의 특징 또한 다양하여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위키피디아(Wikipedia, 2012)는 SNS를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 2008)은 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들은 SNS(Social Network Sites)를 “개인들로 하여금 ①특정 시스템 내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②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며, 나아가 ③이런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 그리고 그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규정한다.

관점에 따라 정의는 각기 달라지지만, 정의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요소는 웹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 대인 관계의 형성 및 유지, 관계망의 구조, 관계망의 파도, 정보의 교류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NS는 웹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이나 활동을 지향하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이상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드러내고 정보 교환을 수행함으로써 대인관계망을 형성토록 해 주는 웹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SNS를 적극 활용한 성공사례로는 재미교포 로이 최가 미국 LA지역에서 트럭을 통해 테이크아웃(Take-Out) 방식으로 판매하는 KOGI를 들 수 있다. KOGI의 주메뉴는 멕시코식 타코에 한국식 불고기를 접목한 퓨전 음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했으나 트럭에서 판매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 경찰 단속을 피해 위치를 계속 옮겨야만 했다.

이에 고객들에게 언제 어디로 가야 KOGI 타코를 살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활용해 KOGI 트럭의 위치를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자 KOGI를 팔로(follow)하는 고객들이 트럭 도착 전에 미리 판매지점을 알아내 줄지어 트럭을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트위터 활용 3개월 만에 팔로어 숫자가 3만명을 넘

었다. 그해 매출은 200만달러를 돌파했으며 2009년에는 권위 있는 레스토랑 상(賞)인 ‘본 아페티(The Bon Appetit Award)’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한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집을 만들며 페이스북에서 사전 주문을 받은 결과 출판 전에 400여권이 판매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사진집이라는 특성, 즉 가격은 고가인 반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가는 2012년 봄에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한 이후 줄곧 자신의 기존 작품을 소개해 왔는데, 작가의 작품을 보며 소통했던 이들이 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2.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미국 영어교사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voice)과 행위(gesture)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대개 스토리텔러(storyteller)들은 이 단어를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간의 인터랙티브한 과정이라 말한다.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기도 하는데,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만화·게임·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3. 중문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

중문천은 한라산 남서쪽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중문동 베릿내를 거쳐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그 길이가 12km 내외로 제주도의 다른 하천들과 비교할 때 중간 규모의 하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 길지 않은 하천임에도 곳곳에 맑은 물이 고이는 소(沼)가 많고 주상절리가 발달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이 중에서 하천의 하류 부분에 위치한 천제연폭포는 지난 2008년 56만명을 비롯해 2009년 63만명, 2010년 60만명, 2011년 55만명 등 연간 60만명 내외

가 꾸준히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천제연지구는 1971년 건설부의 한라산국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정관광지구로 선정되면서 개발이 시작된다. 이후 중문천의 본격적인 개발은 중문관광단지의 개발과 그 궤적을 같이 하는데 중문관광단지는 1973년 청와대 관광개발기획단에서 수립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73~1981)에 의해 처음 거론된 이후 1977년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 중문단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설정된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의 수많은 개발계획 입안 과정에서 중문관광단지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그 핵심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현재의 중문천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베릿내포구까지, 즉 중문관광단지 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뤄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구체적인 관광활동으로는 천제연폭포 관람과 베릿내 포구에서의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 중문천 공원에서의 휴식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중문천의 주요 자원으로는 천제연폭포와 발달한 주상절리층을 보여주는 지질자원, 난대림의 모습을 간직한 식생, 지역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신당, 옛 사람들이 벼농사를 위해 물을 끌어왔던 수로와 샘 등 민속자원이 있다. 하류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각종 경관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① 고대통

천제연 하류로 계곡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고대는 물에 자라는 대나무의 일종으로 '고대가 자라는 통'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과거에는 갈대가 많이 자랐다고 한다.

② 비늘찍 | 베늘찍

천제연 하류로 돌담을 쌓고 돌담사이 구멍을 풀 등으로 막아 은어를 잡았던 곳이다. 은어는 봄에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다시 가을에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성질을 이용하여 '찍담'을 쌓고 이를 뛰어넘는 은어를 잡았다고 한다.

③ 오름골

베릿내오름 앞에 있는 물골이라고 해서 오름골이라 부른다. 오름 앞에는 두 개의 물골이 흐르는데, 웃골은 대정현감을 지낸 채구석이 1907-1908년 공사를 하여 천지연 웃소의 물을 이곳으로 끌어와 이 일대 5만여평의 논을 개간하게 만든 물골이다. 알골은 1923년

에 만들었는데, 천제연 알소의 물을 끌어와 너베기 쪽 3만여평의 논물로 사용했다.

④ 흙소

빌레통에서 남쪽으로 100m 가량 내려온 곳이다. 비가 오면 근처의 물이 흘러들어 흙탕물을 이르는 소라 하여 흙소라 부른다. 이곳에 가려면 배릿내 포구에서 상류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며 놀던 곳으로 근처에서 은어와 게를 잡기도 했다.

⑤ 빌레통

진소에서 40m 정도 내려온 계곡의 서쪽 기슭이다. 냇바닥이 하나의 커다란 바위로 이루어져 물이 흐르는 곳으로, 빌레는 암반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쪽 만지샘오름의 서쪽 벽을 꼬불꼬불 돌아 오르내리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으나 매우 경사가 급했다고 한다.

⑥ 진소

만지샘동산 서쪽 계곡으로 7래소에서 30m 가량 내려간 곳이다. 소(沼)가 길기 때문에 진(긴) 소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수심이 깊고, 폭이 넓어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다. 은어와 참게, 장어, 새우 등이 많이 서식했다고 한다.

⑦ 7래소

천제연 3단폭포를 이르는 말이다. 높은 절벽에서 한줄기로 물이 떨어져 소용돌이치며 마치 7래가 도는 것과 같아 7래소라 부른다. 7래는 맷돌을 이르는 말이다. 수심이 깊고 깊은 계곡을 이뤄 통행이 매우 어렵다.

⑧ 만지샘

천제연 삼단폭포의 동쪽 가파른 언덕으로 지금의 천제사 경내다. 서쪽을 향해 샘이 솟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집안에 제사나 토신제, 조왕제 등을 지낼 때 이곳의 물을 길어다 쓸 정도였다.

⑨ 비대천

천제연 입구에서 88돌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북쪽 옷소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다. 이곳에서 남쪽 계단을 내려가면 1970년대 이전 중문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샘이다. 가뭄이 들 경우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비를 내려 달라는 의미를 담아 비대천이라 부른다.

⑩ 천제연 구멍

천제연 옷소(1단폭포) 위쪽 200m 지점으로 천제연 내에 위치한 샘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구멍이란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후 솟아나는 물을 이룬다. 수량이 풍부하고 수심이 적당하여 수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중문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이 물이 흘러내려 천제연 옷소에 폭포를 이룬다.

⑪ 올리소

천제연 옷소(1단폭포)에서 상류쪽으로 500m 가량 올라간 곳으로 냇바닥이 매끄럽고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오리들이 많이 찾았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바위 위에 다람쥐 껍데가 있다.

⑫ 상여궤 | 생이궤

제2천제교 다리 밑 냇가의 천연동굴이다. 마을에서 사용했던 상여를 보관했던 곳이다. 바로 앞에 큰 소가 있어 많은 물이 고여 있어 옛날에는 식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⑬ 드람쥐궤

천제연 중류인 제2천제교 다리에서 200m 가량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냇가의 동쪽 절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굴로 다람쥐가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선인들이 원시생활을 했던 곳으로 바로 옆에 물을 끼고 있다. 지금은 당이 설치돼 있다.

⑭ 백구 | 배꼽물

중문마을 서북쪽인 백구동네 사거리의 서쪽으로 가면 마을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중문천 일대다. 하천이라면 소와 말이 다니기 불편한 곳인데, 이곳은 동쪽으로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어 쉽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못이 커서 한꺼번에 백 마리의 소나 말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고 하여 백구라 불렀다는 설과 중문마을이 배의 형국인데 배의 밑에 고인 물, 즉 배꼽물이 백구로 변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⑮ 옷넷도

중문마을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중문천의 중류다. 과거 옷한질의 동서를 이어주는 넷가의 입구라는 뜻이다. 1980년대 도로를 확장하면서 콘크리트 다리를 개설했다.

⑯ 두어물 | 두께물

물고기가 입을 벌린 모습을 해서 두어물이라고 한다. 바위가 그릇의 덮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께물이라고도 한다. 두께는 뚜껑을 이르는 말이다. 비교적 출입이 쉬운 곳으로 넷바닥이 암반으로 넓게 흙을 이루고 많은 물이 고여 예로부터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⑰ 그른내

중문마을의 북서쪽으로 2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천제연의 줄기다. 먼내마을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 줄기가 가로놓여 있고, 이 부근에서 서쪽과 동쪽의 내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른내라 한다. 그른은 갈라지다의 제주어이다.

III. SNS를 활용한 중문천 스토리텔링 사례

박물관의 중문천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5월 9일이었다. 이후 필자가 페이스북 등에 올린 중문천 관련 사진과 글은 20건 가까이 된다. 이들 대부분이 특이한 바위나 돌 형상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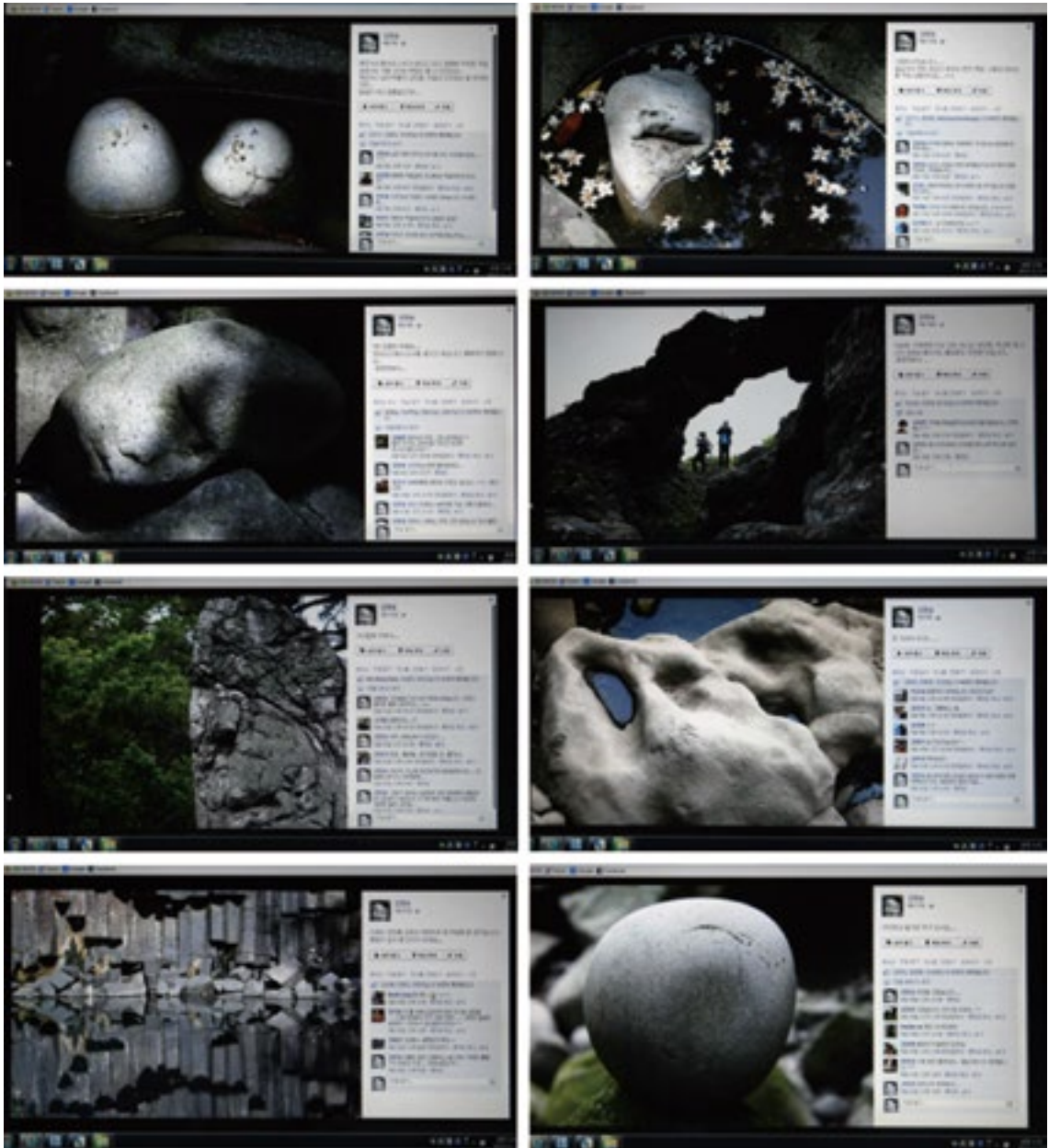


사진 1. SNS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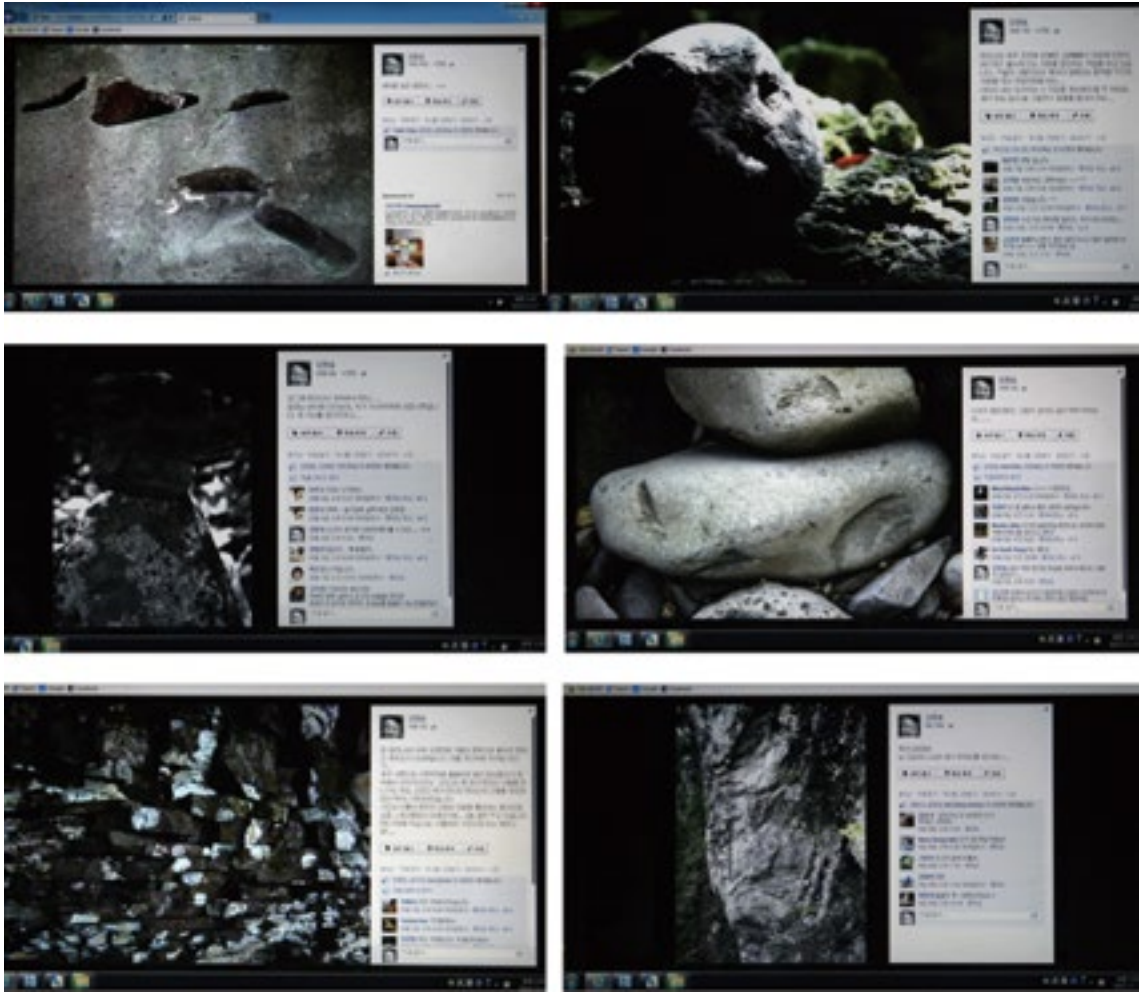


사진 2. SNS사례

각 게시물의 내용과 그에 따른 반응은 다음 표와 같다(게시물 번호는 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표기).

게시물 번호	게시물 글 내용	반응
사진 1-1	제주사내 들어오니 비가 내리고 있다. 광령에 위치한 작업실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빛도 볼 수 있었는데... 계란이나 삶아 먹을까 고민중. 달걀이 아닌 공룡알인가?...	좋아요 56. 댓글 8, 공유
사진 1-2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모두에게 편합니다... 옆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좋아요 61. 댓글 3, 공유
사진 1-3	시원하시겠습니다... 꽃잎까지 뿌린 한라산 계곡의 천연 욕탕. 그렇죠 머리는 물 위로 내밀어야죠... ㅎㅎ	좋아요 57. 댓글 14, 공유

사진 1-4	췌트 조용히 하세요... 한라산신께서 오수를 즐기고 계십니다. 돌베개가 맘에 드는... -중문천에서...	좋아요 129, 댓글 14, 공유
사진 1-5	저승문, 지옥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방선문, 우선문 등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곳곳에 있습니다... -중문천에서...	좋아요 42, 댓글 2, 공유
사진 1-8	돈 크라이 포 미...	좋아요 47, 댓글 6, 공유
사진 1-7	이제는 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물결이 일게 돌 던지지 마세요...	좋아요 38, 댓글 4, 공유
사진 1-8	넉넉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좋아요 98, 댓글 24, 공유
사진 2-1	해야할 일은 많은데... TT	좋아요 38, 댓글, 공유
사진 2-2	한라산과 제주 곳곳에 1만8천 신(神)들이 좌정해 있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각각의 자원을 엮어 관광자원화 하는...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할 듯 하네요. 제가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좋아요 60, 댓글 5, 공유
사진 2-3	엣그제 한라산의 계곡에서 만난... 원래는 바닥에 있었는데, 저가 저 바위위에 좌정시켰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주려고...	좋아요 88, 댓글 8, 공유
사진 2-4	누르지 말란 말야. 그렇지 않아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좋아요 75, 댓글 12, 공유
사진 2-5	잘 쌓았나요? 어제 오랜만에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한라산 계곡조사 다녀왔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두어달 쉬다가... 계곡 사면으로 시루떡처럼 촘촘하게 쌓인 관상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더군요. 그리고는 몇 분의 한라산 신들을 만나기도 했죠. 조만간 제가 만났던 한라산의 신들을 한군데 모아 책이나 엮어야겠습니다. 사진과 더불어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요즘 스토리텔링이 대세라기에... (늘 꿈만 꾸고 있습니다만) 기대해 주십시오. 이름하여 '사진으로 읽는 제주신화'...	좋아요 97, 댓글 16, 공유
사진 2-6	기다림에 지쳐서...	좋아요 44, 댓글 9, 공유

위 사례에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그 요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사진으로 보여주는 대상물-여기에서는 바위의 형상-이 얼마나 특이하나의 문제이다. 그 자체에서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반응 또한 높아진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와 더불어 쌍방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이는 기존 홈페이지 형식의 일방통행으로는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게시물 게시자가 댓글에 대해 호응해 줄수록 그 반응은 커진다. 셋째, 시간상의 문제로 많은 이들이 접속시간대에 게시할 경우 그만큼 반응은 높아질 것이다.

위에 나열한 요인들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무엇보다도 공동의 관심사와 더불어 소통

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제주의 난개발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다.

이 사진은 1980년대 개발이전의 포구에 위치했던 성천포마을, 즉 베릿내마을의 옛 모습이다(그림 3).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3. 베릿내마을의 옛 모습

민속촌이냐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라는 제주에서 최고의 관광단지라는 중문관광단지의 예전 모습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진을 보면 그 자체로도 입장료 받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 마을, 이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대신에 이곳의 자재를 가져가서 만든 표선의 제주민속촌이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가 됐죠. 그리고 이곳에는 추가로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호텔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위치로 말씀드린다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이어지는 다리 옆에 있었던 어촌마을이죠. 요즘 보니 요트를 타는 포구로 이용되는 바로 그곳, 예전에는 별이 내리는 마을이라 하여 베릿내마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한자어로는 성천포라 이름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요? 글썄 가서 보시는 게 낫겠지요. 여기서 저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관광으로부터 관광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소수의 관광학자들 얘기가 들리십니까?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라는 제주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을 보면 좋아요 213명, 댓글 47개에 공유가 무려 44개나 된다. 심지어는 공유에 다시 공유하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 게시물들과 비교할 때 폭발적인 반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독자들의 감정을 얼마만큼 끄집어낼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얼마나 공감가게 이야기하느냐, 더 나아가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으로의 확대가 그 관건이다.

IV. 사진을 통해 본 중문천의 스토리텔링 자원들

하천에 있는 바위나 돌담은 보는 사람과 각도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는 바위들의 경우도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소개되는 바위는 중문천에서 볼 수 있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먼저 밝힌다. 예시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향후 추가적인 자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사진 4. 눈과 안경

중문천은 하천이 범람하며 만들어진 포트홀을 여러 곳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접근이 쉬운 곳을 선정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 5. 물고기의 입(?)



사진 6. 외계인의 형상



사진 7. 올빼미의 눈과 얼굴



사진 8. 하마의 얼굴



사진 9. 주상절리와 신성한 샘



사진 10. 하천을 품은 우주



사진 11. 두람지례당

두람지례당의 신령님

중문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으로 중문마을 서쪽의 배곶내라는 냇가에 있다. 당은 이 냇가에 있는 ‘두람지례’라는 굴이다. 굴은 70~80명이 들어앉을 만한 넓이의 것인데, 그 안쪽에 시멘트로 길쭉하게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제단 위 바위벽에 신체(神體)를 모시는 상자를 장치해 놓고 있다.

신체는 천으로 감아 묶어 자그마하게 + (십)자형으로 만들어 물색 옷을 입힌 것으로 10개가 있는데, 남신에게는 쾌자를 입히고 여신에게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혔다. 이 신체는 상자 속에 안치해 두었다가 당굿을 할 때는 꺼내어 제단에 모셔 앉힌다. 당의 제일(祭日)은 정월보름과 팔월보름으로 연 2회 당굿을 크게 한다.

이 마을을 세운 성씨는 임씨(林氏)와 이씨(李氏)라 하는데, 이 임씨 집안과 이씨 집안이 지금도 상단골(上位의 신앙씨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단골 집안에서 당굿의 준비를 하여 매인 심방(당에 딸린 무당)을 시켜 당굿을 하게 하며, 신체의 옷(神衣)이 더러워지면 새로 만들어 입히고는 한다. 당굿 때는 마을 각 호에서 부녀자들이 제물을 차려 가지고 와서 종일 굿이 진행된다.

이 때 상단골 집안은 오른쪽 자리에 앉고, 다른 성씨들은 왼쪽 자리에 앉아 단골의 계층을 구분한다. 매향 심방은 김씨 할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오씨·강씨·현씨·정씨·강씨·고씨 심방을 거쳐 현재의 매향 심방 고씨(여)심방까지 8대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 당의 신은 중문이하로산과 진궁부인 부부와 그 아들 부부이다. 이 신들이 당신이 된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라산 서쪽허리 소뭇된뱃이라는 곳에서 9형제가 솟아났다. 9형제는 성장하여 각각 당신이 되어 갈려져 갔는데, 다섯째 아우가 중문에 와서 당신이 되었다. 이름은 중문이하로산이다. 중문이하로산과 그 부인 진궁부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일곱살 때 불효한 짓을 하였으므로 돌함에 담아 바다로 띄워버렸다.

돌함은 동해용왕국 황 정승 집의 산호수에 걸렸다. 황 정승의 막내딸이 돌함을 발견하여 아버지에게 보고하였다. 돌함은 막내딸에 의해 내려지고 열려졌다. 돌함 속에서는 옥동자가 나왔다. 황 정승은 장군감임을 알고 막내사위로 삼았다. 이 때 동해용왕국에는 병란이 일어났다. 이 사위는 군사를 거느리고 난을 평정하였다.

황 정승이 소원을 물으니 사위는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다. 황 정승은 사위와 딸을 돌함에 담아 띄워주었다. 돌함은 중문 바닷가로 떠올랐다. 부부는 두람지계로 가서 부모와 같이 살다가 이 마을의 불목당에 갈려져 나와 따로 좌정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다람지계(두람지계)라는 본향당과 불목당이라는 당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녹하지악의 4·3 유적

녹하지악 알오름은 녹하지오름 남쪽 바로 밑에 있는 자그마한 오름을 말한다. 알오름 지명은 오름의 위치가 녹하지 밑에 있다고 하여 알오름이라고 불려졌다고도 하고, 동산이 둥그스름한 형으로 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도 한다.

이 알오름 정상에는 4·3 당시 설치됐던 주둔소 흔적이 아주 잘 남아 있다. 이 주둔소는 겹담으로 단단하게 쌓아졌다. 축성된 시기는 정확치 않다. 증언에 의하면 100 사령부 소속의 경찰토벌대가 주둔했다 한다. 이 곳은 동북쪽으로 거린사슴과 범정악, 북서쪽으로 돌오름과 영아리 오름, 서쪽으로 병악, 남서쪽으로 모라이악과 우보악이 잘 관측되는 토벌작전의 요충지였다.

현재 알오름 주둔소는 레이크힐스 골프장 안 해발 620.5m 지점의 녹하지오름 남쪽, 속칭 '알오름'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이 주둔소에 대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가 2002년 레이크힐스 골프장 공사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한 후, 이곳

은 4·3성으로 보존이 요청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알오름 주둔소 성에는 회곽도가 설치되어 있고, 모퉁이마다 망루(望樓)가 세워져 있었다. 현재 길이는 가로, 세로 각각 40여m, 높이 1~4m, 폭은 3m 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쪽면은 현재 흰흙이 깔린 채 성담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아마 인근 목장에서 울타리를 쌓는 데 성의 돌들을 이용하며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성 밖에는 깊이 1.5m, 폭 1m 가량의 해자가 있다(제주4·3유적-서귀포시편).



사진 12. 녹하지악에 있는 4·3유적

V. 결론

중문천은 제주의 여타 하천들과는 달리 하류에서 상류까지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곳으로 바위마다 갖가지 형상들을 자랑한다.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하천 가운데의 바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곳이다. 그럼에도 천제연폭포 일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하천들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다.

바위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하천 중간중간의 소(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드람지케당 등 신화자원, 풍부한 물을 끌어들이어 논농사를 지었던 흔적 등 자원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천제연폭포의 경관을 활용한 보는 관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자원의 발굴과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문천에서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작업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답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살 붙이는,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필요시 작가들을 초청해 함께 걷는 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 등을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수많은 작가들이 제주를 찾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앞서 소개했던 SN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블로거와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